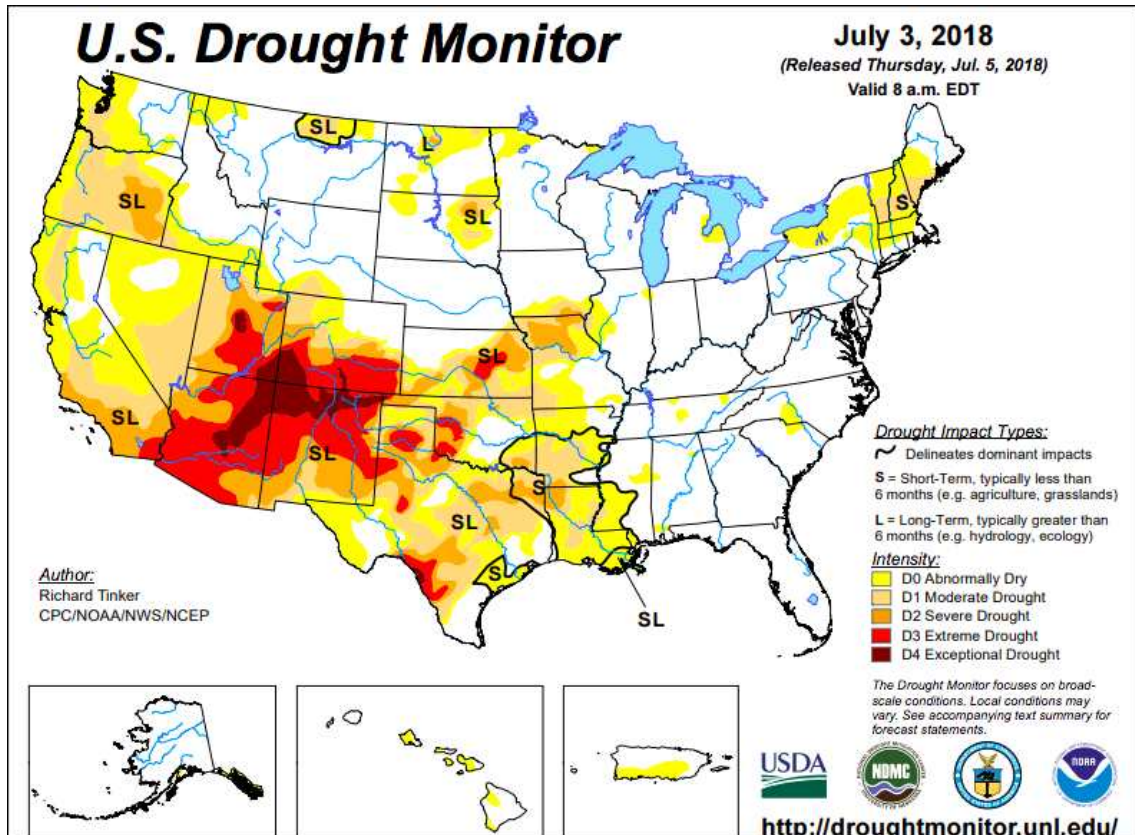


7월 10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5, No. 28)

□ 미국 기후 현황(7/1~7/7)

중부와 동부에서는 소나기가 한두 차례 내렸다. 하지만 남부, 중남부, 북동부 등에서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고 있으며, 미시간 남부 일대에서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남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5°F 정도 높은 날씨를 보이기도 했다. 중남부에서부터 북동부 및 대서양 연안 중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도 더운 날씨를 보였으며, 특히 뉴 잉글랜드의 경우 지난 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에 비해 10°F 이상 높았다. 캘리포니아와 태평양 연안 북서부 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였으며, 주 후반 갑작스러운 더위가 찾아오기도 했다. 서부 일대에서는 지난 한 주간 3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해 500여 가구가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 농업 현황 요약(7/2~7/8)

로키산맥 동부 일대에서는 곳곳에서 비가 내렸고, 콜로라도 Basin 등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는 지역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뉴 잉글랜드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최소 6°F 이상 높았고, 반대로 태평양 연안 북서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2°F 정도 낮았다.

□ 세계 기후 현황(7/1~7/7)

■ 유럽: 남부 유럽 일대에서는 비가 내렸고, 반대로 북부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잉글랜드, 프랑스 북부, 폴란드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2~6°C 정도 높았다. 독일 북부와 폴란드 등에서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가뭄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의 지난 60일간 누적 강우량은 평년의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남부 유럽 일대에서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5~50mm 내외의 비가 곳곳에서 내렸다. 지중해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바라기, 면화 등은 좋은 생육 상태를 보이고 있다.

■ 구소련(서부): 러시아 남부 일대에서는 가뭄이 심했던 지역에 비가 내려 가뭄이 상당부분 해소가 되었다. 흑해 일대에서부터 러시아 북부 코카서스 지구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10~5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특히 이번 비는 Stavropol 등 지난 13일 동안 낮 최고기온이 35°C 이상 올랐던 지역에 집중되어 이 지역 농가에 큰 도움이 되었다. Krasnodar 등 코카서스 지구의 서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5°C까지 올라가는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남동부에서는 지난 90일간의 누적 강우량이 평년의 10~50% 수준에 그치는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북부와 서부에서는 4~4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벨라루스와 러시아 북서부 등에서도 25~7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 동아시아: 중국 북동부의 남쪽 지역과 남부 해안 일대에서는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하지만, 남부 지역의 경우 최근 몇 차례 내린 비에도 불구하고 지난 60일 간의 누적강우량이 평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중국 북동부의 Heilongjiang, Jilin 및 내몽고 등에서는 25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한편, Hebei, Anhui, Jiangsu 등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다. 태풍 Prapiroon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를 통과하면서 일본 남부 지역에 200~5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한반도 일대에서는 50~200mm 내외의 비가 내렸는데, 이번 비는 특히 지난 5월부터 가뭄이 지속된 남한 지역 일대에 큰 도움이 되었다.

■ 호주: New South Wales 북부와 Queensland 남부 지역 일대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5~1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곳에 따라서는 25mm 이상의 제법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는 지난 파종 시기 극심한 가뭄을 경험했던 이들 지역의 수확량을 증대시키는 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New South Wales 남부와 Victoria 북부 등에서도 3~1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한편, 서호주의 주요 밀 재배지역에서는 비가 내렸고, 이들 지역에서는 밀의 생육상황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부와 남동부 호주에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고, 북동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2~5°C 정도 기온이 높았다.



■ 아르헨티나: Buenos Aires 일대에서는 3~2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곳에 따라서는 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집중되기도 했다. 한편, La Pampa에서는 10mm 미만의 적은 비가 내렸다. Entre Rio와 Formosa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다. 앞서 언급한 지역에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한 가운데, Buenos Aires 남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10°C 초반까지 오르내렸고, Formosa 일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초반까지 오르내렸다. 한편, La Pampa와 Buenos Aires 지역에서는 밤 동안 기온이 영하 2°C까지 내려갔다. 아르헨티나 농림부 보고서에 따르면, 7월 5일 La Pampa와 Buenos Aires 지역의 밀 파종률은 60% 수준이며, 전국적으로는 밀의 파종률이 8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준 옥수수의 수확률은 78%를 기록했다.

■ 브라질: Rio Grande do Sul, Santa Catarina 등에서는 1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 북동부 해안 지역에서도 5~4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한편, Parana 북부에서부터 브라질 중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이들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았으며, 낮 최고기온은 30°C까지 오르내렸다. Parana 주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7월 2일 기준 밀의 파종률은 97%를 기록했고, 이모작 옥수수의 수확률은 2%를 기록했다. Rio Grande do Sul의 경우, 7월 5일 기준 밀의 파종률은 88%를 기록했다. Mato Grosso에서는 7월 6일 기준 옥수수 수확률이 34%를 기록했으며, 면화의 수확률은 2%였다.